

지역 中企 “돈 씨가 말랐어요”

은행들 “내 코가 석자” 대출 꺼려
꺾기 여전·高금리... 기업 ‘삼중박’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제조업체들이 밀집해있는 하남산단 등에서는 부도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광주상의(회장 이승기)가 최근 지역 제조업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자금사정(10월 기준)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악화됐다’는 업체가 65.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하다’는 32.9%, ‘개선했다’는 1.3%에 불과했다.

자금난의 원인으로 응답업체들은 ▲제조원가 상승(42.0%) ▲경기둔화에 따른 매출 감소(32.0%) ▲금융권 대출관리 강화(12.0%) ▲환율 및 금리불안(12.0%) ▲환보 손실(2.0%) 등을 들었다.

중소업체들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종합금융대책을 통해 신용지원을 확대를 내세웠지만 은행창구에서는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자동차 용품을 생산하는 B업체 관계자는 “매출이 지난해보다 35% 가량 떨어져 운전자금을 마련하려고 신용보증을 통해 은행문을 두들겼는데 어렵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하남산단내 A 기계제조업체 대표는 “각종 원자재값은 크게 올랐는데, 모기업의 수출 부진으로 부품 납품하기도 어려워 이공고를 겪고 있다”며 “이러다간 조만간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보통 운전자금 보증의 경우 신용보

증기금이 대출금액 중 85%에 대한 보증을 서주고 있으나, 은행들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불황과 유동성 위기 등에 따라 나머지 15%에 대한 위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출을 꺼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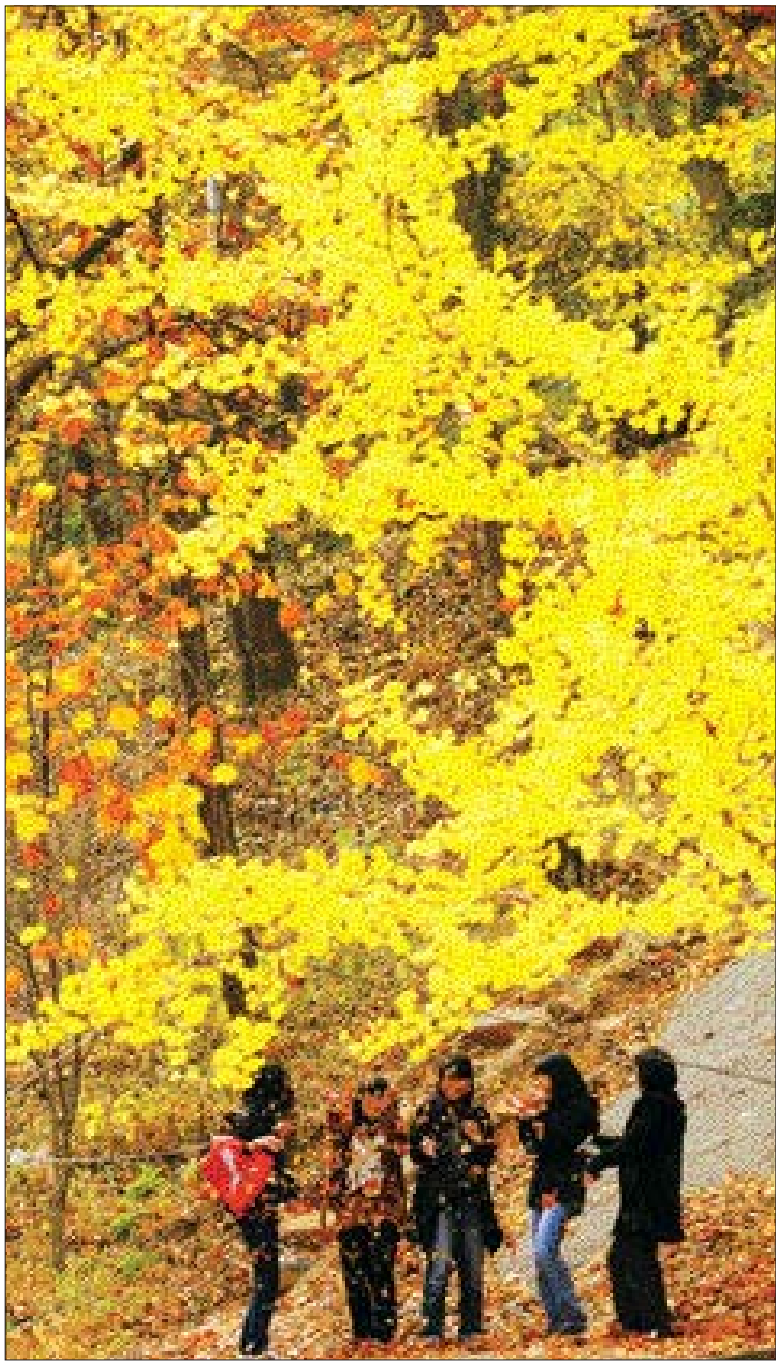
이와 함께 기업대출 조건부 판매(일명 꺾기)도 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중은행 등 금융권이 신규대출이나 기존 대출 연장시 적금이나 채권매입 등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의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C사는 “은행권에 5억원 규모의 대출을 요구했는데 그 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회사의 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어렵지 않다면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은 금융권 대출이자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춘공단내 D업체 대표는 “일부 정책금리를 제외하고 8% 중반을 오르내리는 시중금리가 너무 부담스럽다”면서 “적정금리를 5~6%대까지 끌어내려야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다소라도 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실물경기의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추세”라며 “정책자금 지원확대, 급격한 환변동 방지, 기준금리 인하, 신용평가체계 개선, 대출신청 절차 간소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황금빛 가을 휴일인 16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내 은행나무 숲 단풍이 절정의 황금빛 자태를 뽐내고 있다. 지난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 유명 산에는 막바지 단풍을 즐기려는 수십만명의 관광객들로 크게 붐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서울대 자유전공 381~383점 전남대 의예과는 375점 예상

대입 전문기관 분석

법학과 대신 신설되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의 합격선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400점 만점)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 381~383점은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련기사 7·8면>

전남대는 국어교육과가 인문계열 중 가장 높은 340점을 합격선으로, 자연계열에서는 의예과가 375점, 통신대 한의예과는 370점 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정시모집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대학'에 지원하려던 언어·수리·외국어·탐구 등 각 영역에서 모두 최소 상위 4% 이내에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입 전문기관들에 따르면 매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으로 법대를 대신해 새로 개설될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의 정시모집 합격 예상점수는 381~383점 수준으로 내다봤다. 대성학원은 381점을 예상했고 유웨이중앙교육과 중앙학원은 383점을 제시했으며 종로학원은 이보다 약간 높은 386점을 합격선으로 전망했다.

합격 예상점수는 언어·수리·외국어·탐구 등 4개 영역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계산한 원점수를 기준 삼았기 때문에 표준점수에 따라 합격선은 달라질 수 있다.

서울대 경영대학은 대성학원 382점, 유웨이중앙교육 384점, 종로학원 388점, 중앙학원 387점 등으로 자유

전공학부보다 약간 높았다. 이는 법대 지망자들이 경성계열로 옮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자유전공학부는 아직 성격이 분명하지 않아 향후 로스쿨 진학을 희망할 경우 경영대학처럼 특정학과를 전공한 사람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웨이중앙교육이 작성한 주요대학 지원 가능권 점수 배치참고표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는 전남대의 예과가 375점으로 가장 높은 합격선을 나타냈다. <2면으로 계속>

/정성필기자 camus@연합뉴스

주요대학 지원 가능 예상 점수 (400점 만점)

대학	학부 및 학과	점수
서울대	경영대학	384
	자유전공학부	383
	의예과	390
연세대	경영대학	375
	자유전공학부	374
고려대	의예과	388
	자유전공학부	377
전남대	의대	386
	의예과	375
통신대	국어교육과	340
	한의예과	370

(유웨이중앙교육 제공)

社 告

원자력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대학생 에너지 캐리번

광주일보사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함께 ‘대학생 에너지 캐리번’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문제와 원자력에 대한 광주·전남지역의 대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의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과 지역 에너지특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물론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한국수력원자력공사 등 에너지 관련 산업체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 대학생들의 취업 궁금증을 풀어줄 계획입니다.

광주의 에너지 정책을 수십 년간 기획해 온 류용빈 광주시청 과학산업과장을 비롯, 정운관 조선대 공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각 산업체 담당자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며 영광 원자력본부를 직접 견학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발효와 함께 광주가 환경부의 ‘저탄소 시범도시’로 지정되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에너지에 대한 시·도민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주관 : 광주일보사
- 일시 : 2008년 11월 22일(토) 오전 9시
- 장소 : 조선대 제2공학관 1층 대강당
- 참여 신청 및 문의 :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 또는 총무국(062-2200-514)

*참여 대학생들에게는 기념품과 점심식사 등을 제공합니다.

光州日報社

G20 정상 ‘금융 규제·감독 강화’ 합의

李 대통령 “무역투자 새 장벽 ‘동결 선언’ 동참”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G20(서방 20개국) 정상회의의 합의

가속 정자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금융감독 당국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한 ‘세계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청사진’ 마련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5면>

또 G20 정상들은 세계 경제의 하강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지출 확

대 등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의 선도발언을 통해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기회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새로운 장벽을 더 만들지 않는 ‘동결(Stand-Still) 선언’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고생 겨울방학 학습특강!!!
개강 :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강사진

호남한샘학원
교육전화 : (061) 222-1111
홈페이지 : http://www.hosam.ac.kr